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I. 개요

- 학습주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 학습대상자/교과목: 고등학교 2학년/생활과 윤리
- 수업시간: 50분
- 수업수준: 3
- 학습목표:
 - 1)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2) 죽음에 대한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읽고, 어떤 관점인지 파악할 수 있다.

| | | |
|----|---------------|---|
| 동양 | 공자 |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현세의 윤리적 삶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강조함. |
| | 석가 모니 | 윤회설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봄. |
| | 장자 |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곧 삶과 죽음으로 봄으로써 삶과 죽음을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봄. |
| 서양 | 플라 톤 | 인간의 죽음을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봄. |
| | 에피 쿠로 스 | 인간을 이루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보았으며, 정신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죽음 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함. |
| | 하이 데거 | 현존재인 인간만이 자신에게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염려할 수 있고,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 가치 있고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봄. |

II. 개발 배경

- **요구분석:** <생활과 윤리> 과목은 기존 <윤리와 사상> 과목이 학생들에게 어려워 윤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윤리에 관련해서 사상가들의 관점이 등장하여 윤리 사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쉽게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고, (2) 사상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누구의 관점인지 파악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33.8%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은 청소년에게도 하나의 생활사건이기에, 그것을 금기시하기보다 교육의 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김춘경 외, 2016).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데켄(Deeken, 2002)은 죽음준비교육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중 첫째는 지식전달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죽음과 관련된 정보에는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철학적인 내용도 있다. 다음 단계인 가치관 단계를 위해

서는, 철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수업은 생활과 윤리 교과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다루며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의 측면에서 본 수업이 그 첫 단계가 되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수업은 스마트 기기 이용이 익숙한 고등학생들이 더욱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글 문서와 Socrative 앱을 활용한다. 모둠원들과 구글 문서에서 배운 내용을 표로 재구조화하는 협동학습을 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킨다. Socrative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학습 결과를 검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수업은 가네의 수업의 사태를 중점적으로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주의를 획득하기 위해 수업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수업과 연관 지으면서 향후 수업 내용에 대해 암시하였다. 또한, 수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단원 내용 중 본 수업과 관련이 있는 사전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설명과 문답 위주의 자극 제시 이후에는, 구글 문서를 활용한 모둠 별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협동 학습 이후, Socrative 앱을 활용한 개별 연습 문제 풀이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행 평가는 다음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공지 이후에,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이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Ⅲ. 수업 청사진

| 학습-교수 과정 | 수업 내용 |
|-------------------------|--|
| 주의 집중 - 주의 획득 | -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수업 주제인 '죽음'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영상은 '아이들이 말하는 죽음'에 관한 영상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영상을 보기에 적합하다. 이후, 학생들에게 인상적이었던 말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낸다. 영상 속 아이들의 말과 이후에 등장하는 사상가의 관점을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한 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학습에 대한 기대 - 학습 목표 제시 | -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목표를 위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2) 죽음에 대한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읽고, 어떤 관점인지 파악할 수 있다. |
| 사전지식 재생 - 사전지식 회상 자극 | - 질문을 통해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동양윤리를 상기시킨다. |
| 선택적 지각 - 자극 제시 | - PPT를 활용하여 공자, 석가모니, 장자,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사상가들의 말,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헛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추가 텍스트를 활용하여 질문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고 설명한다. |
| 의미적 부호화 | -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장기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조화할 |

| | |
|----------------------|---|
| - 학습 안내 제시 |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구글 문서를 통해 표를 완성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상들을 삶과 죽음의 관계,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재구조화하며, 사상가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며 이해하도록 한다. |
| 재생과 반응 - 수행 유도 | - Socratic을 통해,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제시하면 어떤 사상가인지 맞추는 개별적인 연습문제들을 제시한다. |
| 강화 수용 - 피드백 제공 | - 한 문제 한 문제씩 텍스트가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학생들은 문제를 한 문제씩 풀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한다. |
| 자극에 의한 재생 - 수행 평가 | - 수행 평가는 다음 수업 시간 도입 부에 이루어진다. 수행 평가 문항은 학생들이 연습문제에서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다. |
| 일반화 - 파지와 전이 향상 | -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업 시간 다룬 관점들을 정리하고, 이 관점들을 다른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신의 관점과 주변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사상가의 관점과 유사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제를 제시한다. |

IV. 수업 교안

| 수업 단계 | 수업과정 | 교수학습활동 | | 시간 | 비고 (준비물, 유의점) |
|-------|-------|---|---|----|------------------|
| | | 교사 | 학생 | | |
| 도입 | 주의 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모니터, Socratic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기기 등 수업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자리에 앉도록 한다. ■ 학생들과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학생들에게 준비한 영상자료를 시청하도록 한다. <p>- 여러분, 오늘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할게요.</p> <p>*영상자료 (아이들이 말하는 죽음, 3분) https://www.youtube.com/watch?v=PmD4FpW4pt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영상에 나온 말 중 인상적인 것을 떠올리게 한다. <p>- 여러분,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 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한다. ■ 선생님과 인사 후, 출석 확인에 답한다. ■ 준비된 영상자료를 시청한다. ■ 영상에 나왔던 말 중 인상적인 것을 떠올려본다. | 8분 | |

| | | | | | |
|----|------------|--|---|-----|--|
| | | <p>말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의 학생의 발표를 듣고, 각각의 말이 이후 수업에서 다룰 관점들 중 어느 관점에 가까운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p>* 학생 답변에 따른 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모른다고”: 공자의 관점 - “죽음이 다가가기 전에 열심히 살면 죽음에서 두렵지 않겠지요? 후회 없이 살아가면 되니까.”: 하이데거의 관점 - “영혼은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플라톤의 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을 들어 자유롭게 발표한다. 죽음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사상가들의 죽음관과 유사함을 이해한다. | | |
| | 학습목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통해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오늘의 수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 - 수업 후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어요. 1)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2) 죽음에 대한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읽고, 어떤 관점인지 파악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인지하며, 수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 2분 | |
| | 사전지식 회상 자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수업과 관련된 선수 학습(유교, 불교, 도교 윤리) 내용을 질문을 통해 회상시킨다. - 이전 단원에서 우리는 동양 윤리와 서양 윤리의 접근에 대해 배웠어요. 동양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 불교, 도교 윤리가 각각 어떤 것들이었는지 떠올린다. | 2분 | |
| 전개 | 자극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통해 죽음관을 설명한다. ■ 공자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공자가 생각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에 대한 공자의 대표적인 말(사례)을 통해 제시하고, 죽음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한다. ■ 학생들이 공자의 다른 말(사례)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공자의 죽음관을 이해한다. ■ 공자의 다른 말을 보고, 방금 | 12분 | |

| | | | | | |
|--|----------------|---|--|------------|-----------------|
| | | <p>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지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가모니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석가가 바라보는 고통으로서의 죽음을 윤회설을 통해 설명한다. ■ 학생들이 석가모니의 죽음관을 표현한 다른 말들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석가모니의 죽음관이 아닌 표현(비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장자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장자의 초연한 태도를 설명한다. ■ 장자의 죽음관과 반대되는 표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플라톤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 학생들이 플라톤의 다른 말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감각의 상실로서의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 ■ 학생들이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을 표현한 다른 말들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하이데거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하이데거가 죽음을 통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학생들이 하이데거의 죽음관을 표현한 다른 말들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p>배운 공자의 죽음관에 입각하여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석가모니의 죽음관을 이해한다. ■ 다른 표현들을 보며, 이것이 석가모니의 죽음관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장자의 죽음관을 이해한다. ■ 제시된 표현을 보며, 어떤 점에서 장자의 죽음관이 아닌지 구분한다. ■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플라톤의 죽음관을 이해한다. ■ 플라톤의 다른 말을 보고, 방금 배운 플라톤의 죽음관에 입각하여 이해한다. ■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을 이해한다. ■ 다른 표현들을 보며, 이것들이 어떤 점에서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인지 이해한다. ■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하이데거의 죽음관을 이해한다. ■ 다른 표현들을 보며, 이것들이 어떤 점에서 하이데거의 죽음관인지 이해한다. | | |
| | <p>학습안내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장기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삶과 죽음의 관계,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 <p>10분</p> | <p>스마트기기 활용</p> |

| | | | | | |
|----|----------------|--|---|-----|-----------|
| | | 한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구글 문서를 통해 표를 완성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 표 예시 첨부 | 을 기준으로 재구조화해본다. 모둠원들과의 의논을 하며, 사상가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며 이해한다. | | |
| | 수행 유도 및 피드백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ratic을 통해,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제시하면 어떤 사상가인지 맞추는 개별적인 연습문제를 제시한다. 한 문제 한 문제씩 텍스트가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문제를 풀며, 개별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행을 보이는지 점검한다. | 10분 | 스마트 기기 활용 |
| 정리 | 수행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 수업 전에 수행 평가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한다. 수행 평가는 앞 단계에서 수행한 연습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평가문항 예시</p> <p>1. 다음 글에 담긴 죽음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죽음은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진실해진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다면 남은 삶을 더욱 보람 있게 살지 않겠는가.</p> </div> <p>①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다. ② 죽음을 기의 흠어짐으로 보았다. ③ 죽음을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④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라고 보았다.</p> <p>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p> <p>을: 삶을 죽이고 초월하려는 자에게 죽음은 없고, 삶을 살려고 탐하는 자에게는 삶은 없다. 태어나기 전의 근원을 보면 원래 삶도 형태도 기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가 생겨서 변해 형체가 되고 삶이 되었다가 변하여 죽어 가는 것이다.</p> </div> <p>① 갑: 삶과 죽음은 하나다. ② 갑: 현세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를 결정한다.</p> | | 1분 | |

| | | | | | |
|--|-------------------|---|---|-----------|--|
| | | <p>③ 을: 삶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다. ④ 을: 죽음에 대해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 ⑤ 갑, 을: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순환과정이다.</p> <p>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갑: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데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육체로부터 떠났을 때에야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을: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으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p> </div> <p>① 갑: 육체는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과 같다. ② 갑: 육체적 죽음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③ 을: 죽음은 인간을 이루던 원자들이 흩어지는 것이다. ④ 을: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⑤ 을: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p> | | | |
| | <p>파지 및 전이 향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통해 오늘 배운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관점을 정리한다. ■ 수업 도입 과정에서 제시했던 학습 목표를 다시 제시하여 학생들이 본 수업에서 자신이 목표를 성취했는지 성찰하도록 한다. ■ 학습 내용이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경험을 과제로 제시하여, 전이를 촉진시킨다. <p>-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관은 누구의 죽음관과 가깝나요? 앞으로 오늘 배운 죽음관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죽음관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보세요. 또, 수업이 끝나면 카톡 친구 중에 한 명을 골라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보내보세요. 그리고 친구의 답변이 오늘 배운 죽음관 중에 어떤 관점에 가까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 제시된 학습 목표를 보며 자신의 성취 여부를 성찰한다. | <p>5분</p> | |

* 표 예시

| 사상가 | 내용 | 삶과 죽음의 관계 | 죽음을 대하는 태도 |
|-------|---|-----------|------------|
| 공자 | 나는 (죽음)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도덕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애도)해 야해. | 삶>죽음 | 슬픔 |
| 석가모니 | 나는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윤회)의 과정이자, (고통)이라고 생각해. | 삶-죽음 | |
| 장자 | 나는 삶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삶과 죽음을 차별할 필요가 없어. | 삶-죽음 | 슬픔x 초연 |
| 플라톤 | 나는 죽음은 영혼이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 삶<죽음 | 긍정 |
| 에피쿠로스 |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불안으로 느끼지. 하지만 나는 죽음은 '(무)'의 상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 삶>죽음 | 두려움x |
| 하이데거 | 나는 죽음을 인간이 (실존)을 깨닫는 계기라고 생각해. | 삶<-죽음 | |

| | 석가모니 | 장자 |
|----|-------------------------|----|
| 죽음 |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임. | |

| | 장자 | 에피쿠로스 |
|----|--------|---------|
| 죽음 | 기의 흩어짐 | 원자의 흩어짐 |
| 태도 | 두려움 x | |

| | 석가모니 | 에피쿠로스 |
|----|------|--------|
| 죽음 | 고통 | 감각의 상실 |

| | 공자 | 장자 |
|----|--------------------|-----------------|
| 태도 | 죽음에 대해 마땅히 애도해야 함. |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음. |

| | 에피쿠로스 | 하이데거 |
|----|-----------------------|----------------------|
| 태도 |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 | 우리는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음. |

참고문헌

- 김국현 외 9명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김윤정 외 (2018). New 올리드 생활과 윤리. 미래엔에듀.
김춘경 외 4명 (2016). 상담학 사전. 학지사.
미래엔 편집부 외 (2018). 1등급 만들기 생활과 윤리 725제. 미래엔.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5).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제 5 판). 파주: 교육과학사.
동아출판 편집부 (2019). 올쏘 내신강자 고등 생활과 윤리. 동아출판.
최창욱 외 4명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자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활과 윤리

‘아이들이 말하는 죽음’ <https://www.youtube.com/watch?v=PmD4FpW4ptw>

EBSi 고교 강의

강사: 김종익 https://www.youtube.com/watch?v=tL_o3YiLOGo

강사: 송기택 <https://www.youtube.com/watch?v=AwNMWxixO2M&t=578s>

강사: 이지영 <https://www.youtube.com/watch?v=wmaQW4a5Kw4>

강사: 이지영 <https://www.youtube.com/watch?v=FrgDcvnCr1k>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학습 목표

- 01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02 죽음에 대한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읽고, 누구의 관점인지 파악할 수 있다.

- 1) 죽음: 자연적 과정
- 2)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 현세의 도덕적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
- 3) 죽음에 대해 마땅히 애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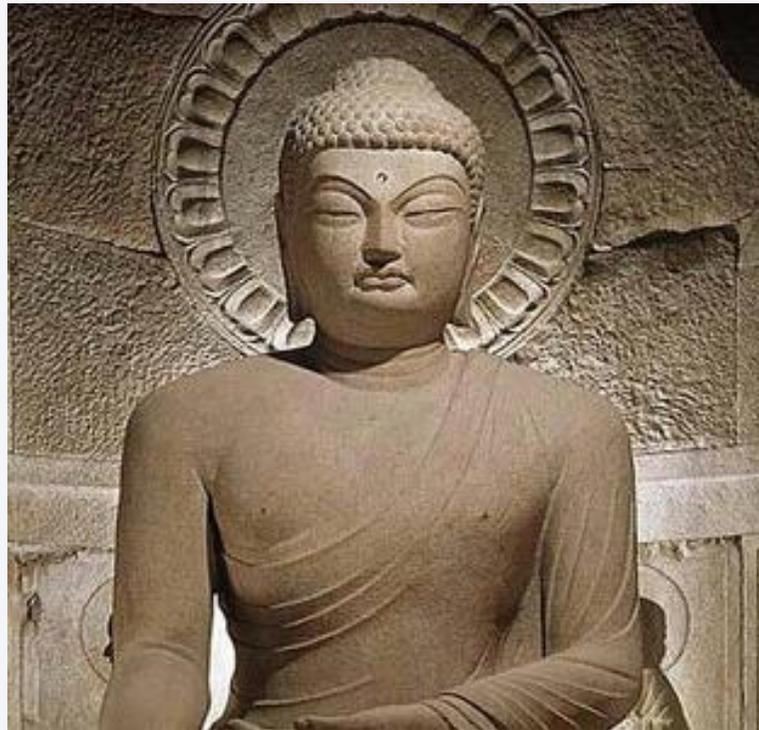
01

공자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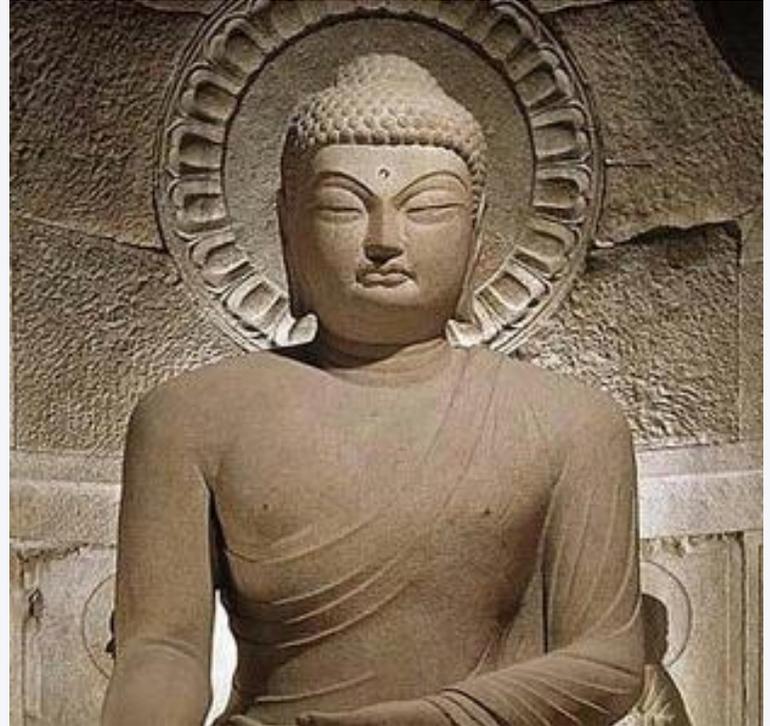


- 1) 죽음: 고통
- 2) 윤회설, 삶과 죽음은 하나.
- 3) 현세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



석가모니

- 다음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의 삶에서 마음을 깊이 다스려 항상 고요한 열반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세에서의 삶이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 해탈하여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죽음은 삶의 끝이면서 동시에 윤회의 시작이다.
- 죽음은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이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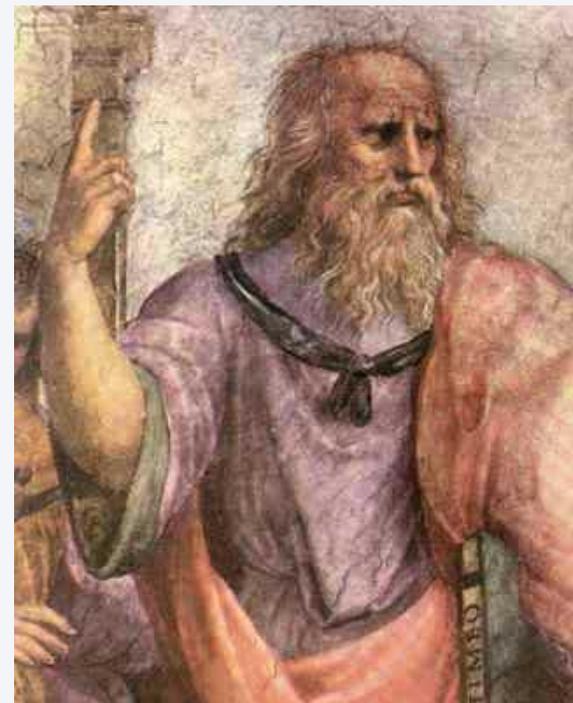
- 1) 죽음: 기의 흠어짐
- 2)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흐름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
- 3)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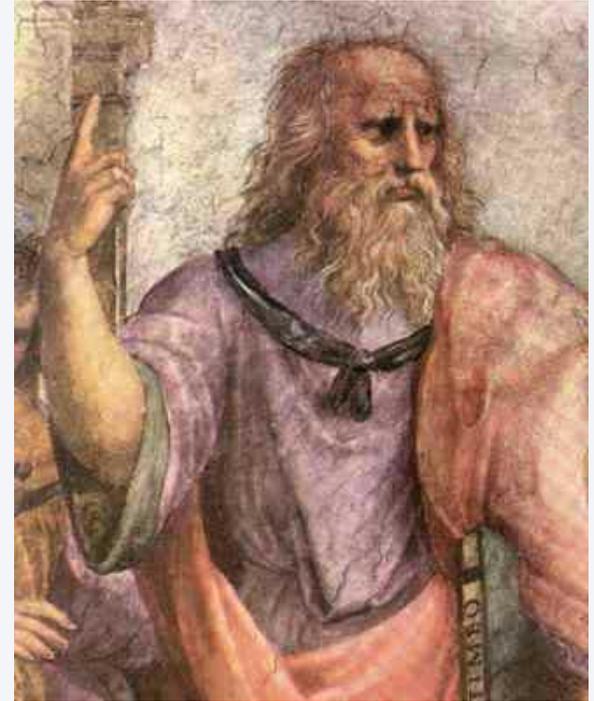
삶과 죽음을 분별해야 한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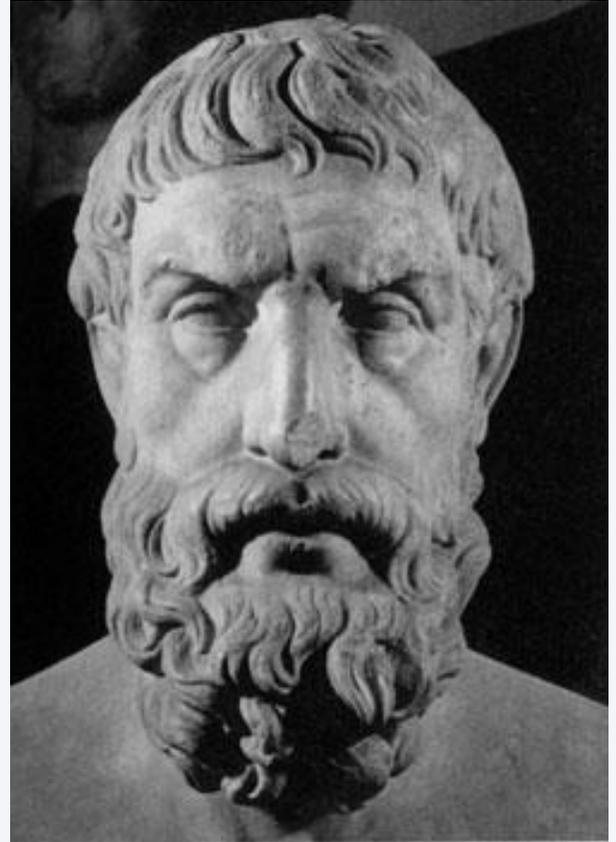
- 1) 죽음: 영혼이 불완전한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에 도달하는 과정
- 2) 이원론적 세계관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 1) 죽음: 감각의 상실
- 2) 우리는 사는 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음.
- 3)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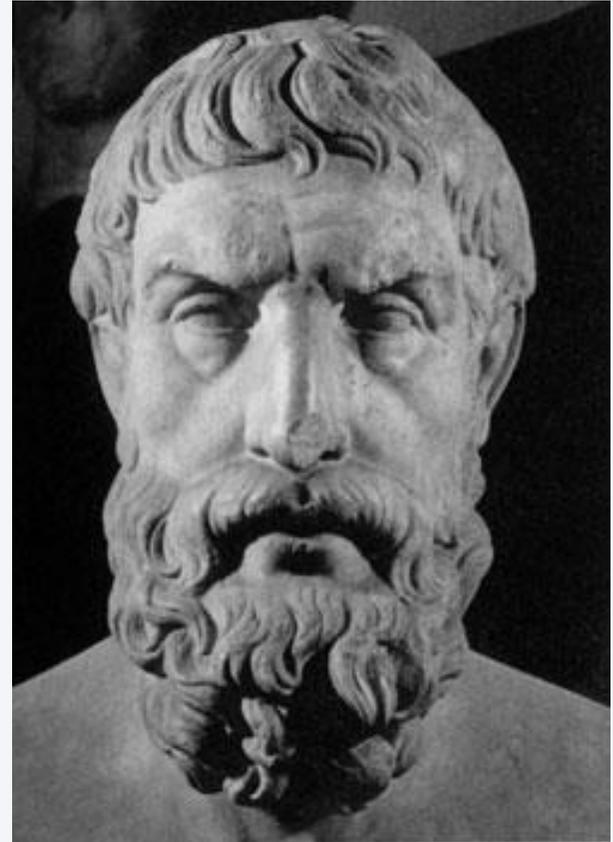


에피쿠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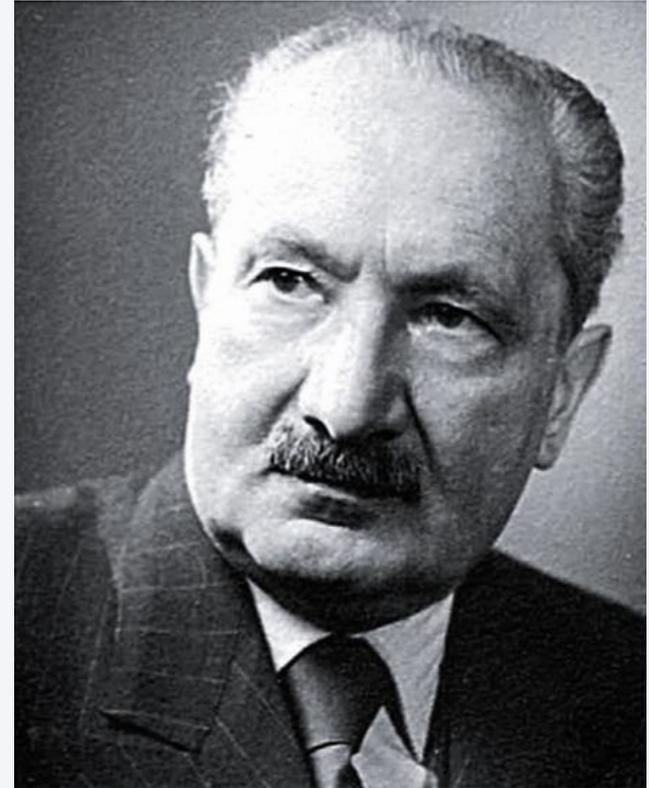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쾌락으로 본다.

Memento Mori, Carpe diem.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1) 죽음: 실존 회복의 계기
- 2)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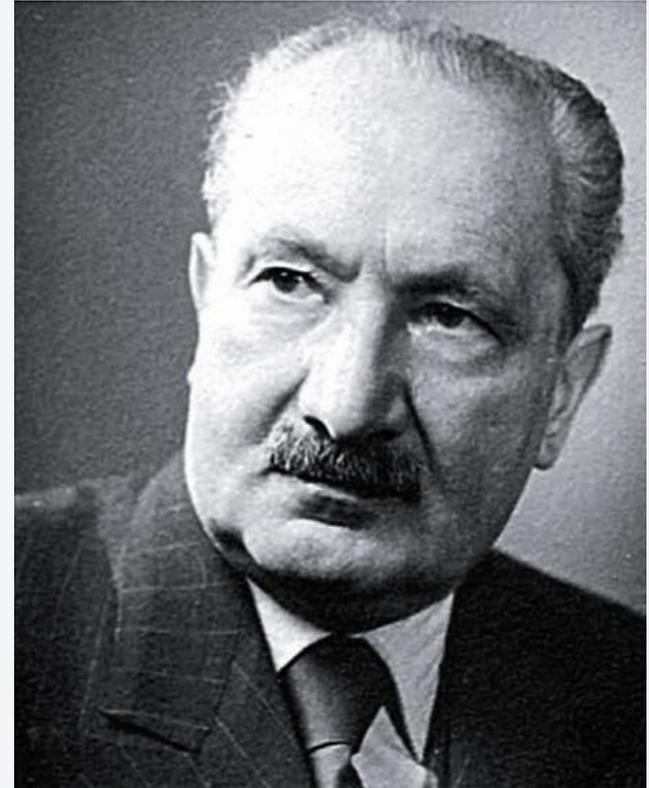
하이데거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보는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롭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사건이다.



연습 문제

삶의 목적은 절제된 생활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13.09)

-에피쿠로스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 공자

연습 문제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니, 진인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네. - 장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떠나야 하며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죽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능한 일이다. - 플라톤

연습 문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면,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가사성도 즐겁게 된다. - 에피쿠로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자신의 죽음을 남에게 맡길 수 없고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실존을 회복한다. - 하이데거

연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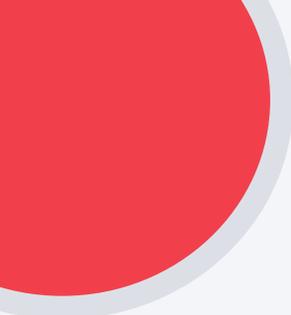
망망하고 혼돈한 대도 속에 섞여 있던 것이 변해서 기가 되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죽음이 된 것이다. - 장자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불교

삶은 육체 안에 갇힌 감금 생활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이다. - 플라톤



연습 문제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이다. 하지만 현존재의 죽음을 단순히 다른 생물의 종말에 입각해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하이데거

나와내 주변 사람들은?



나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

오전 10:00

?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학습 목표

- 01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02 죽음에 대한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읽고, 누구의 관점인지 파악할 수 있다.

- 1) 죽음: 자연적 과정
- 2)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 현세의 도덕적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
- 3) 죽음에 대해 마땅히 애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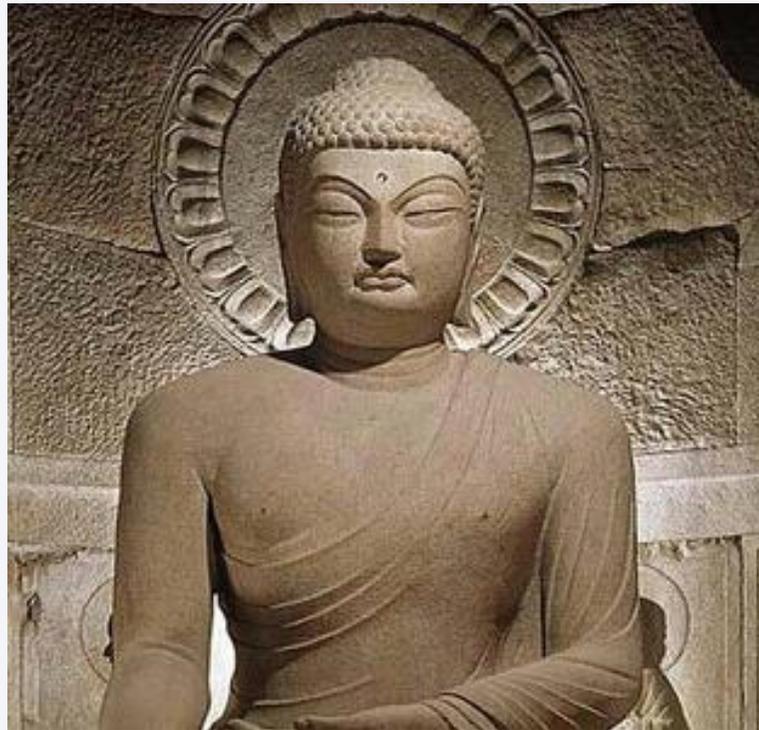
01

공자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1) 죽음: 고통
- 2) 윤회설, 삶과 죽음은 하나.
- 3) 현세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



- 다음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의 삶에서 마음을 깊이 다스려 항상 고요한 열반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세에서의 삶이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 해탈하여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죽음은 삶의 끝이면서 동시에 윤회의 시작이다.
- 죽음은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이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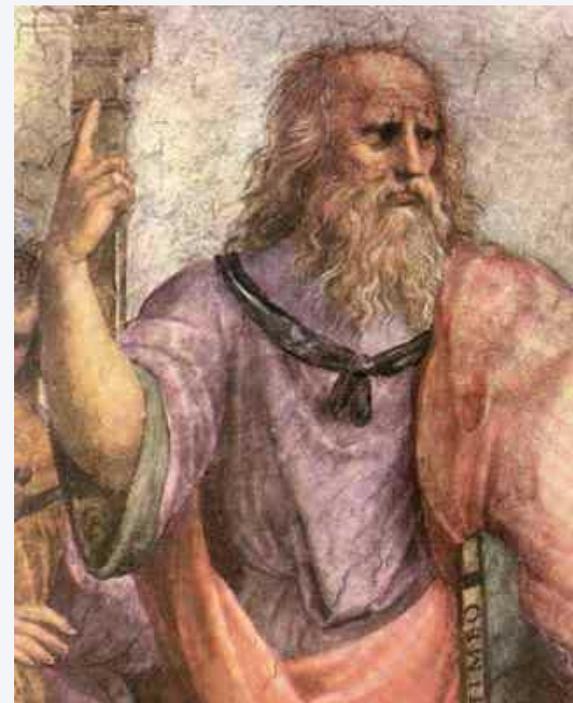
- 1) 죽음: 기의 흠어짐
- 2)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흐름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
- 3)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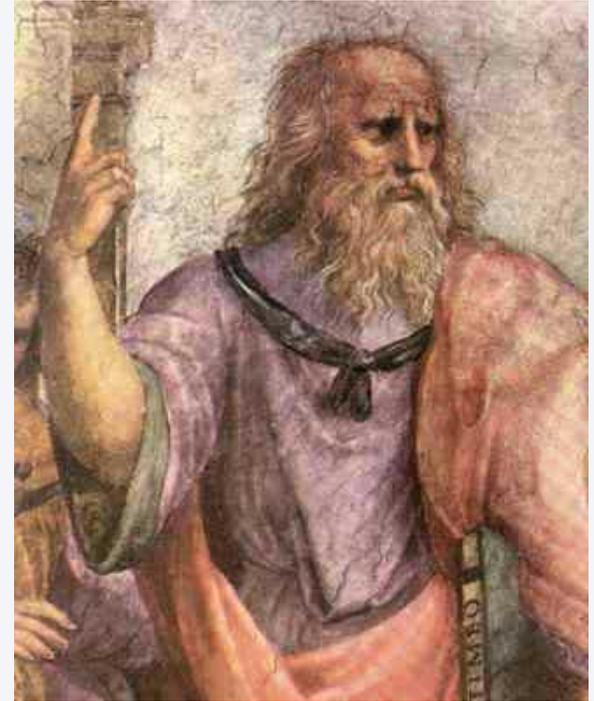
삶과 죽음을 분별해야 한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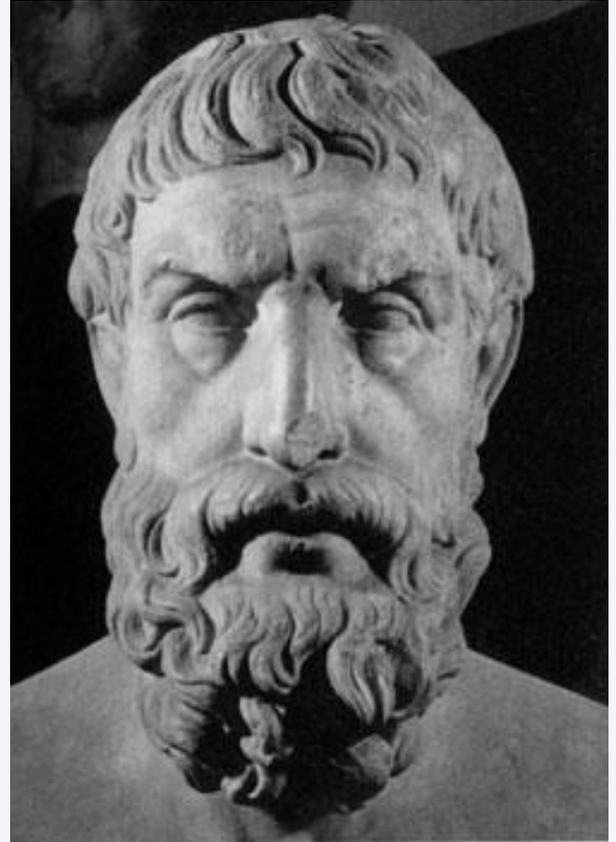
- 1) 죽음: 영혼이 불완전한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에 도달하는 과정
- 2) 이원론적 세계관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 1) 죽음: 감각의 상실
- 2) 우리는 사는 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음.
- 3)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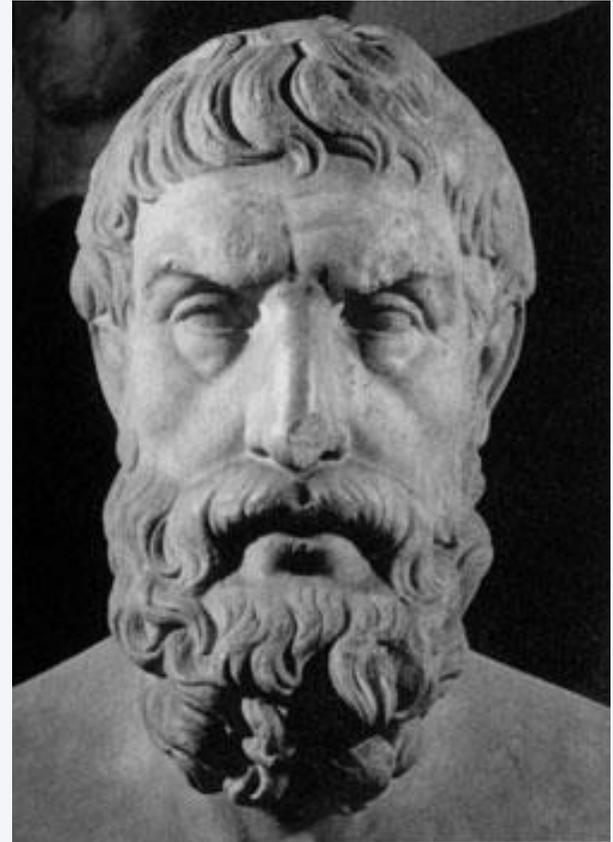


에피쿠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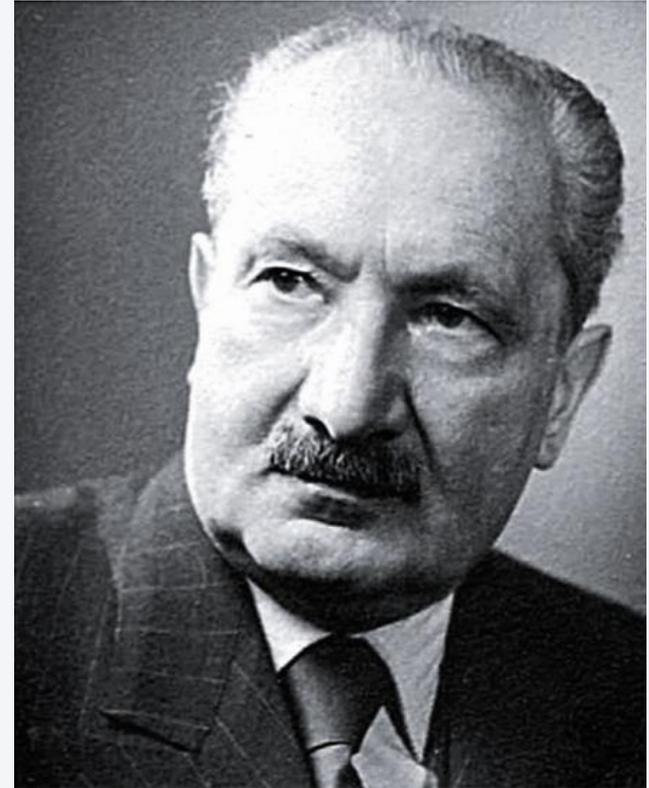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쾌락으로 본다.

Memento Mori, Carpe diem.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1) 죽음: 실존 회복의 계기
- 2)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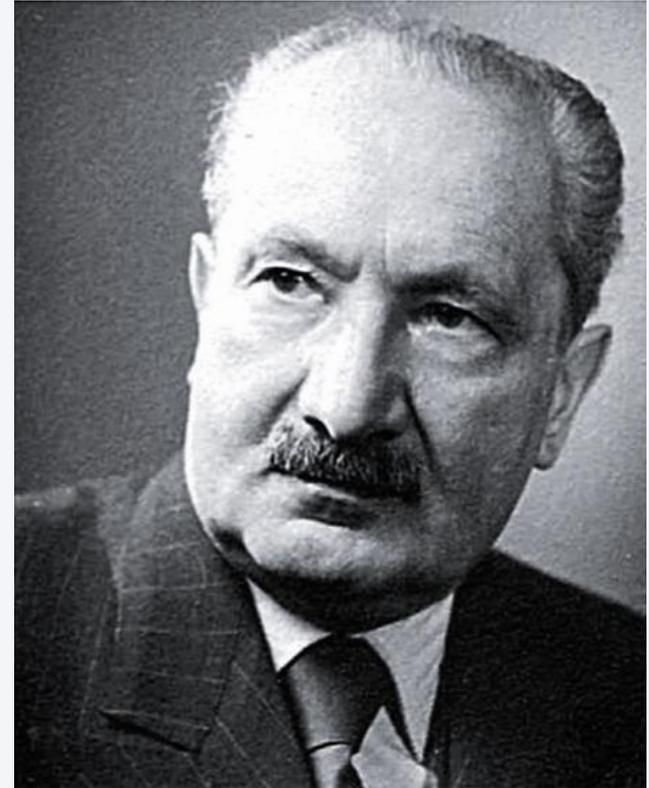
하이데거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보는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롭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사건이다.



연습 문제

삶의 목적은 절제된 생활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13.09)

-에피쿠로스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 공자

연습 문제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니, 진인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네. - 장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떠나야 하며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죽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능한 일이다. - 플라톤

연습 문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면,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가사성도 즐겁게 된다. - 에피쿠로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자신의 죽음을 남에게 맡길 수 없고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실존을 회복한다. - 하이데거

연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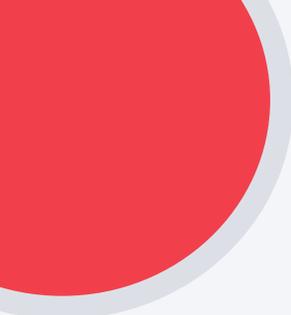
망망하고 혼돈한 대도 속에 섞여 있던 것이 변해서 기가 되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죽음이 된 것이다. - 장자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불교

삶은 육체 안에 갇힌 감금 생활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이다. - 플라톤



연습 문제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이다. 하지만 현존재의 죽음을 단순히 다른 생물의 종말에 입각해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하이데거

나와내 주변 사람들은?



나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

오전 10:00

?